

지역 이모저모

하동군 '100원 버스' 경남도 곳곳으로 확대

목포시

27일 '목포해상W쇼' 공연

목포시는 '2024 목포해상W쇼' 특별공연이 오는 27일 저녁 8시부터 북항 노을공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지난 4~5월에 이어 3회째인 목포해상W쇼는 본격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와 열대야를 잊게 해주는 신나는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워터밤으로 진행된다.

래퍼로 활동하는 JD와 유령의 신나는 힙합 공연으로 한여름 밤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린 후, 이어지는 EDM 워터밤 공연에는 메인 DJ로 나선 개그맨 겸 가수인 박명수(G-Park)씨가 거대한 물줄기와 함께 화려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교통공사

1호선 전동차 문화유산 지정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1편성 전동차'가 역사적 상징성 및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4일 부산시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동차는 1985년 7월 1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개통 시 최초 도입된 14개 편성의 전동차 가운데 하나로 2018년 7월까지 33년간 운행됐다.

특히 부산도시철도의 첫 번째 전동차로 역사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바다가 있는 부산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형·스테인리스강 차체로 최초 제작돼 상징적 의미도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김해시-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재정비

경남 김해시와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 재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동으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 재정비 권한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김해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김해관광유통단지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속한 사업 준공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유희부지 양도·양수 ▲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방안 마련 등이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경남 시장·군수 정책회의서 '대중교통비 무료화' 핵심 안건

김해시·거제·함안 등 시행 진주·거창·의령 등 내년 추진

하동군이 처음 시도한 '100원 버스'가 경남도로 확산된다.

지난 22일 마산 로봰랜드에서 열린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는 '경남 대중교통비 무료화'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하승철 하동군수는 안전 발표를 통해 하동군이 지난해부터 경남 최초로 시행한 초·중·고 '100원 버스' 사업과 올 7월부터 그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 시행할 것에 대해 그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하동군은 2023년 1월부터 도내 최초로 관내 42개 노선에 10대의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운행해 왔다. 이는 농어촌 학생들의 교통



하동군 '100원 버스' 운행 모습.

/하동군

비 부담을 덜어 교통복지 실현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시행된 것이다.

100원 버스 시행 이후 초·중·고 학생의 2023년도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동군은 2024년 7월부터 관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이 100원만으로 지역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도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누구나 느끼는 대중교통의 불편함에 대해 누구도 소외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버스를 이용하도록 한 하동군의 100원 버스 사업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그간 경남도는 전남도에 비해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더딘 행보를 보였지만, 교통이 곧 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초·중·고 학생들과 어

르신 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비 무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하동군 100원 버스에 이어 창원시가 어르신 월 8회 무료, 김해시가 어린이 무료, 거제시가 어린이·청소년과 어르신 일부 무료, 함안군이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진주시·거창군·의령군·함양군도 내년부터 버스 이용료 100원 또는 무료화 추진을 검토 중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하동군 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 노령 인구가 지난해 벌써 20%를 넘어섰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하동군의 100원 버스 사업이 전 시군으로 점차 확대돼 경남이 대중교통 복지 정책의 선도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포항시 "모래로 만든 '태권V' 보러오세요"

27일~28일 '영일대 샌드페스티벌' 축구선수 황희찬 등 인물상도 표현

경북 포항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모래조각 작품전시와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지는 '2024 제8회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포항의 낭만, 모래예술의 향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영일대해수욕장에 모래조각 작품 3점이 전시된다.

메인 모래 작품은 '포항의 성장·사랑 이야기 그리고 미래'라는 작품명으로 포항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

그 속에 시민들의 열정과 사랑을 담은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미국 리시모어산 조각상을 패러디해 포항과 인연이 있고 정치·경제·체육·문화예술·사회 각 방면으로 기여하며 포항을 알린 이명박 전 대통령,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황희찬 축구선수, 전유진 가수, 남대영 신부 인물상을 조각해 표현했다.

또한 포항 구룡포를 관광명소로 만든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명장면을 구현한 모래조각 작품과 7~80년대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어린이들에게 동심을 유발하는 로봇 태권V와

마징가Z를 콜라보한 조각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는 영일대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송도해수욕장에도 영화 '라라랜드'의 낭만적인 댄스 장면을 모래로 조각한 작품이 전시된다. 모래조각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10월 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에서는 '모래 놀이터', '달빛 모래건기', '도전! 나도 모래 조각가'와 같은 다양한 체험과 버스킹 공연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저녁 8시부터 펼쳐지는 멀티미디어 불꽃쇼는 포항 밤바다와 어우러져 장관



영일대 해수욕장의 메인 모래 작품 '포항의 성장, 사랑 이야기 그리고 미래'.

/포항시

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호성 해양산업과장은 "이번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의 모래조각 작품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휴가철 관광객들이 포항 해변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항(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경북도, 월 최대 50만원... 접수 시작

경북도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하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했다.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5~6월, 5시간)에 대해 5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한 급여를 보전한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경북에 직장 주소와 두고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아야 한다.

5~6월분 고용노동부의 단축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즉시, 7월 이후 신청하는 근로자는 단축 급여 수령 후 3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감소된 급여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하며 월 최대 50만원(5~6월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나영조 기자

부산 기장군 '역대급 폭염' 적극 대처

하루 6회 이상 살수작업 등 진행

부산 기장군이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군민의 안전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기상청 기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도 높은 22.7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폭염 발생일수도 평년보다 4배 많은 2.8일을 기록하는 등 올해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전망이다.

이에 군은 폭염특보 발령 시 5톤 살수차 6대를 투입해 5개 읍·면별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32km 구간을 순회하며 하루 6회 이상 살수작업을 진행한다. 이는 계획이다.

또 ▲황단보도 그늘막 152개소 운영 ▲무더위 쉼터 231개소 운영 ▲버스 승강장 에어컨 121개소 운영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폭염 대응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취약계층 쿨루프 지원 사업 ▲경로당 냉방비 지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폭염 취약계층 안전 확인 등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촘촘한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가톨릭의대 교수들 "9월 전공의 모집? 의대증원 멈춰야" /사진 뉴시스 ▲도봉구, '무연고 어르신 유산기부 지원사업' 1호 기부자 배출

▲용산구,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복지수당 매달 5만원 ▲'뜨양 공갈' 혐의 구제역·전국진, 26일 구속심사



▲공항철도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 출국심사 시간 조정 ▲서울 전역 폭염주의보 발령...서울시, 물청소차 운영 강화 /사진 뉴시스